

# 又玄兄의 追憶

李 熙 昇

지금으로부터 거의 五〇年前(一九二五年 四月)의 일이었다. 又玄 高裕燮兄과 나는 京城帝國大學豫科文科B班의 同級生으로 入學되었었다. 그以後 豫科 二個年 學部(法文學部) 三個年 一滿 다섯해 동안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날마다 같은 學窓에서 苦樂을 함께 겪었던 것이다. 다만 兄은 美學을 專攻하고 나는 國語學을 專攻하게 되어 그 專門分野만이 달랐는 것이다.

當時에 우리 國語·國文學을 專攻하는 學生도 曉星과 같이 드물었지만 美學은 더욱 專攻하는 學生이 적어서 나의 記憶으로는 우리 同胞로서는 오직 又玄兄이 前無後無한 唯一한 存在(京城帝大 第二回 出身)였고, 훨씬 後代에 내려와서 日本人 一名이 있었을 뿐이었다. 美學分野에 이와 같이 希望者가 적었던 까닭은 學問自體가 哲學과 마찬가지로 어렵기도 한 탓이었지만, 그 보다는 그 美學을 專攻하고 나온대야 就職이란 것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것을 豫想했기 때문이었다. 當時 京城帝大의 學生의 氣風으로는 우리 同胞와 日本人 사이에 相當한 差異가 있었다. 絶대多數를 占하는 그들은 在學時代부터 卒業後의 就職에 대하여 큰 關心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는 在學當時부터 일찌감치 就職運動을 하는 者도 있었다. 그러나 全體 學生數의 四分의 一도 안되는 우리 同胞들은 在學時節에 就職問題같은 것은 全然 念頭에 두지 않았었다. 그때 卒業後에 가서는 어떻게든지 되겠지 하는 漠然한 希望을 걸어 놓는 同時에 아침에 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朝聞道면 夕死라도 可矣라)는 생각으로 자기 마음이 내키는대로 자기 취미가 끌리는대로 하고 싶은 學問을 닦아보자는 一念뿐이었다. 그리하여 又玄도 自己의 嗜好와 趣味에 맞을뿐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使命感에 따라 美學을 擇하였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兄이 大學을 마친 후에 就職의 길은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리하여 多年間 美學科의 助手(現在의 助教)로 남아 있었다. 이 不幸이 오히려 兄의 學問의 넓이와 깊이를 擴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는 것이다.

一九三〇年代 末期라고 생각된다. 日政時代의 行政府인 朝鮮總督府가 開城府(市)에 博物館을 設置하게 되었다. 그런데 館長의 候補者가 問題였다. 이 當時 總督府 傘下에 있는 모든 機關의 長은 日本人들이 도맡아 차지하는 形便이었는데 開城地方만은 그렇지 못하였다. 三千里江山에 君臨하여 無所不爲로 그 威勢가 萬能이었던 總督府로서도 開城地方에 대해서만은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 開城사람들은 李氏王朝 開國 初부터 不義의 治者에 대하여 抗拒하는 訓練을 쌓아내려온 傳統이 確立되어 있어서 그러한지 이곳의 모든 機關長은 日本人으로 任命할 수가 없었다. 全城에 몇개 안되는 府尹(市長)이 우리 同胞에게 차례올리 만무한진마는 唯獨 開城府尹만은 日本人이 맡을 수가 없었다. 만일 그렇게 되는 날이면 開城府의 行政은 麻痺狀態에 들어갈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開城府民은 一切 行政命令에 呼應하지 않을 氣勢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電氣會社도 日本人이 經營하면 開城府民은 一致團結하여 그 使用을 拒否할 氣勢였기 때문에 開城사람의 資本과 經營陣으로 構成된 開城電氣會社가 別途로 設立되었다. 當時 서울에는 우리 同胞가 設立、經營하는 銀行이 두어개 있어서 그 支店이 開城에 있었다. 그런데 官設 銀行인 朝鮮殖産銀行(지금의 産業銀行의 前身)도 開城에 支店을 設置하면서 그 支店長만은 우리 同胞로 任命하였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開城商人들이 一切 去來를 開設하지 않을 氣勢가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開城사람들은 團結이 철저하고 抗日精神이 뚜렷하였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開城博物館長의 자리를 日本人이 차지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又玄兄이 그 物望에 오르게 되고 뒤미처 任命、赴任되었는 것이다. 이것이 又玄으로 하여금 自己가 多年間 닦아온 學問을 實地에 活用할 機會를 얻게 하여 그 후 많은 地域을 官費로 探訪·踏查하여 우리 古代美術의 眞相을 闡明하고 우리 考古學의 土臺를 構築하는데 많은 業績을 남기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塔婆의 研究같은 것은 兄의 業

續中の 特記할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후 梨花女子專門學校에서 同僚教授로 있으며 又玄과 筆者와도 大學同期同窓인 又邨 徐斗銖兄과 함께 開城博物館으로 又玄을 訪問한 일이 있었다. 오랫동안 隔阻하였는 舊懷를 世俗의인 歡談으로 풀어버린 후에, 梨花女專文科의 時間講師로 招聘할 뜻을 알리었더니 又玄兄은 이에 欣然히 承諾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그 후로는 一週日에 한번씩 자주 만나게 되어 放課後에는 우리 세 사람이 市內 都心地를 散策하였으며, 或 鮮展(오늘의 國展)이 열리는 때에는 함께 觀覽하기도 하였다. 美術에 全然 門外漢인 筆者가 理解하기 어려운 畫面 앞에 섰을 때에는 又玄이 곧 잘 平易하고도 合理的인 說明을 하여 주어서 筆者에게도 그럴듯하게 理解가 되곤 하였었다.

一九四二年 一〇月 一日 나는 朝鮮語學會事件으로 檢學되어 威興刑務所에 있다가, 一九四五年 八月 一五日 光復이 된 후에 釋放되어 서울로 돌아왔다. 그런데 又玄兄은 이 感激에 甚찬 光復도 구경하지 못하고 이미 그 전해에 애담게도 他界하여 버렸다. 梨花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談笑하던 것이 兄과 나와의 永遠한 訣別이었다는 것을 그 누가 꿈엔들 생각하였으랴. 人生은 無常이라 하지마는 又玄兄의 明滅이 이렇듯 虛하단 말인가. 우리 個人 사이의 莫逆한 情理도 情理러니와 그보다도 우리나라 學界를 爲하여 또 一般으로 우리 文化界를 爲하여 兄의 逝去는 이 만 저만한 損失이 아니었는 것이다. 解放即後 舊京城帝大를 京城大學으로 新出發시키고 다음 해에 國立綜合大學令에 依한 서울大學校로 改編할 적에 文理科大學 안에 美學科를 設置하고도 適格의인 教授陣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서울大學校 出發 때부터 이에 關與하게 된 筆者로서는 又玄이 없는 아쉬움을 얼마나 느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不幸中에도 多幸으로 兄은 美學은 中心으로 하여 많은 著書를 남기었고 大學 講壇에는 서 본 일이 없었지만 斯學의 後繼者를 輩出시키었다. 多年間 開城博物館長으로 있으면서 兄을 追從하고 師事한 弟子를 教導·養成하였는 것이다. 그 結果로 前 國立中央博物館長이었던 現 東國大學校教授요 博物館長인 黃壽永博士와 現 國立中央博物館長 崔淳雨氏, 또 梨花女子大學校教授 兼 博物館長인 秦弘燮博士 등은 다 開城出身으로 又玄兄의 指導를 받은 斯界의 優秀한 重鎮들이다. 筆者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大學에서 공부한 것은 美學이 아니었으나, 무슨緣由로인지 又玄의 門下에서 美學·考古學을 專攻하여 又玄의 뚜렷한 後繼者가 되었다. 이것은 아마 이분들이 又玄을 몇 번 接觸하는 동안 兄의 學識과 德風에 感化되어 스스로 그 後繼者되기를 自願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兄이 남긴 著書와 이들 弟子로 因하여 兄의 肉體는 이미 世上에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學風과 人品과 精神은 生生하게 남아 있어서 앞으로 連綿히 繼承되어 가리라고 믿어진다. 따라서 又玄의 生命은 草露와 같이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永遠히 우리 文化界·學界, 특히 美學界에 生動하여 存續되리라는 것도 確信하여 마지 않는다. 又玄은 生存時에 지독한 愛酒家였다. 酒朋을 만나서 酒幕에 당도하게 되면 그야말로 斗酒를 사양하지 않을 정도로 痛飲하는 버릇이 있었다. 筆者의 다른 친구들 중에도 이와 같은 痛飲家가 적지 않아 있었다. 그들이 貧酒하는 理由를 알아보면 대개는 同一하였다. 日政時代에는 너무도 殘忍한 殖民地政策 밑에서 우리 同胞들 특히 靑年들은 肉身上이나 精神上으로 制約되는 일이 하도 많아서 가슴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鬱憤과 悲憤慷慨와 情을 달래기 爲하여 오직 毒酒로써 麻痺시키 있어 버리려 하였는 것이다. 又玄의 酒癖도 이 範疇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었다. 筆者는 普通아닌 不酒客이라 又玄과 별로 對酌을 하여 본 일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술마시는 態度는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過飲을 하여도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지언정 결코 主정을 하거나 주사를 부리는 醜態를 演出하는 일은 보지 못하였다. 그만큼 又玄의 醉後의 行動은 압전하였다. 이와 같이 又玄兄에 關한 이야기를 적어 가노라니, 五十年 전의 學友인 그의 面貌가 躍如하게 눈 앞에 나타나서 그 音聲이 들릴듯 들릴듯하면서도 이내 말이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

아! 又玄이여, 안타까운 學友여! 在天의 魂靈이 平安하신가.